

전남 6급 승진자 1166명 보직 못 받았다

4명 중 1명 꼴...시·군 편차 커 근속승진제 도입 뒤 해마다 늘어 업무 효율성 위해 대책 마련을

전남도내 각 시·군 6급 공무원 4명 중 1명은 승진을 하고도 보직(계장직)을 받지 못해 일반 주무관(7급~9급)들이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6급)은 동일하지만 보직을 받은 한 명은 중간급 관리자인 계장인 반면 무보직인 또 다른 한명은 같은 직급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셈이다.

또 6급 무보직 비율 편차도 지역별로 최

대 25.6%p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6급은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이자 각 시·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데도, 길게는 수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직원 사기저하 및 업무 효율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김옥기(나주 2, 국민의당)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각 시·군별 6급 무보직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월 9일 현재 각 시·군 6급 승진자는 모두 4753명으로 이중 무보직 6급은 25%인 1166명에 달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건직(128명) ▲의료기술(91명) ▲토목(61명) ▲사회복지(59명)

▲세무(57명) ▲보건진료(56명) 등의 순이다.

또 각 시·군간 6급 무보직 편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급 무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성으로 6급 승진자 173명 중 37.0%인 64명이 무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나주 33.8%(6급 무보직 93명) ▲화순 31.5%(" 69명) ▲장흥 29.5%(" 51명) ▲합평 29.4%(" 45명) ▲영광 28.7%(" 51명) 등의 순이다.

반면 곡성은 6급 승진자 175명 중 6급 무보직이 20명(11.4%) 뿐이었다.

이 같이 6급 무보직이 많은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1년 공무원 인사정책 해소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을 통해 6급 근속승진제(12년)

를 도입한 탓이다.

문제는 6급 무보직 수가 해마다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미운털 박힌 직원 자치단체장의 인사개입 여부에 따라 길게는 수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떠돌이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지역별 편차가 큰 점도 직원 간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옥기 의원은 "6급 무보직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 탓에 상대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사정책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철휘기자 golee@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국감 이전 인적쇄신 시사 (10일)

시청 공직자 회의서 밝혀 고강도 감사 속도 조절 필요

윤장현 광주시장은 4일 인적 비리로부터 촉발된 인적 쇄신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고, 그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던 감사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인적비리에 따른 광주시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의 대대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공직자회의를 조속히 안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공감회의(월례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민과 공직자의 바람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최근 (인적 비리와 관련해) 펼쳐지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 여러 형태로 사과를 했지만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냈던 그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감회의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달 29일 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언급했다. 이후 박용수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5명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표가 수리됐다.

윤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에 대한 윤 시장의 의중도 드러났다. 윤 시장은 "정무라인의 한 축과 행정이 서로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책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외부의 문제로,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응대하겠다"고

	징계	훈계
2016년(22개 기관)	37	152
2015년(25개 기관)	19	66

말했다. 그는 또 "(각 실국) 협업, 실국장 역할과 책임의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늦어도 국감 감사(10일) 이전에는 인적쇄신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실국간 협업의 문제 등에서 소통부재, 역할 미흡 등이 드러난 간부들에 대한 인사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윤 시장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감사의 질과 강도가 높아져 공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접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에 대해 윤 시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일부에서 거론되는 완급 없는 감사에 대한 공직 안팎의 불만을 대신 드러낸 것이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 뒤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서 신분상 조치로 징계 37건, 훈계 152건 조치했다. 지난해 25개 기관 감사에서 징계 19건, 훈계 66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최근 4년간(2012~2015년) 전체 징계 건수가 73건인 점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도한바퀴' 버스 노선 일부 경유지 변경 운영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노선이 가을철 이용객 선호를 반영해 변경됐다.

전남도는 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용객의 선호도와 관광지 경유 시군 의견을 반영하고, 계절적으로 일일시간이 빨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노선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8개 노선의 경유지와 도착 시간이 변경됐다. 장성·담양 코스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홍길동 테마파크를 축령산으로, 구례·화순코스는 지리산 온천단지 제외하고, 샛갯동산을 무등산 양떼목장으로 변경했다.

광주 1코스(담양·곡성)는 시간 단축에 따라 식영정을 제외했고, 광주 2코스(나주·해남·강진·장흥)와 광주 3코스(순천·보성·화순)는 토·일요일 코스를 다르게 구성해 운행한다.

광주 4코스(해남·완도·강진)는 남미륵사를 영랑생가로 변경하고, 목포·무안과 광양·여수 코스는 각각 수산시장을 경유지로 추가했다.

노선 조정 내용은 남도한바퀴 누리집과 급고교수 전용 상담센터(062-360-8502)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예약구매도 할 수 있다.

예약 없이 하지 않더라도,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안기권 전남도 관광과장은 "가을철로 들어서면서 탑승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며 "10월 말부터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은 4일 오전 시내 한 식당에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주관 '2016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에 맞춰 고향을 방문한 해외 호남향우회원들을 방문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호남인은 하나"...목포서 열린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

첫 호남권 개최...내년엔 전북서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호남향우회의 지역별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호남 발전을 기원하는 '2016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가 4일 처음으로 호남권의 목포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세계 호남인의 날'은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나 지난해 11월 호남권 3개 시도지사 모임인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호남지역 개최를 제안해 올해 전남에서 열리게 됐다. 내년부터는 전북·광주 순으로 순회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세계 17개국 43개 지역 호남향우회 지도부 200여 명이 참석해 호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13년 이래 서울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70~80명이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요 향우 참석자는 미국 워싱턴 김매기, LA 조시영, 시애틀 노덕환, 캐나다 밴쿠버 정기봉, 아르헨티나 김상현 등 43개 지역 호남향우회장단이다.

국내에서는 이 지사,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중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환성 전북 국제관계대사, 김호남 목

포상공회소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계호남향우회 및 한인사회의 발전과 고향사랑 운동을 위해 노력한 손종원 유럽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등 6명이 '자랑스러운 호남인 상'을 받았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또 2017년부터 광주·전남·전북의 41개 시군구 학생 41명에게 매년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장학위원회 운영안을 5일 여수 경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병호 신임 광주시 행정부시장 취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박병호(54·사진) 행자부 조직정책관이 취임했다.

신임 박 부시장은 4일 광주시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중양부처 근무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시 역점사업인 자동차와 에너지 밸리 등 미래먹거리 창출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또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시정현안의 해안을 찾겠다"면서 "조직 내 상하 간, 횡적 간 원활한 소통, 부서 간 협업 활성화, 업무 생산성 제고,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활성화 등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

했다. 차분하고 은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박 부시장은 광주 인성고와 성곡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0회)로 공직

에 입문한 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광주시의회 사무처장관 기획조정실장, 행자부 제도·조직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문인 전 행정부시장은 이날 퇴임식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 삼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 가치**
-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 가치**
-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 가치**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